

振興會소식

85年 電子工業人 新年人事會 開催

本會는 지난 1月 15日 오후 6時에 무역회관 22층 무역구락부에서 電子工業人 新年人事會를 개최하였다.

乙丑年 새해의 힘찬 前進과 새로운 결의를 다짐하기 위한 이날의 新年人事會에 참석한 琴震鎬 상공부장관은 「우리나라의 電子工業은 80년대에 들어와 高度化 長期發展 方向에 따라 政府와 企業이 공동으로 컴퓨터, 半導體 등 尖端技術의 産業化를 촉진하고, 脆弱한 부품素材産業의 育成, 生産基盤의 확대 등 제 2의 跳躍을 위한 基盤 강화에 주력한 결과 최근 2~3년 동안에 飛躍的인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고 46억 弗의 輸出實績을 달성한데 대해 노고를 치하하고 「尖端技術 開發에 더 한층 박차를 가하여 品目構造를 先進國型으로 전환해감으로써 價格競争에 優위를 확보해 나가는 한편 輸出産業의 施設自動化와 部品 素材의 國산화로 品質의 고급화와 生産性의 획기적 향상을 기해 臺灣을 비롯한 경쟁국들보다 電子工業의 先進化를 앞당겨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本會 姜晋求 會長은 「연초부터 우리 업계에 경악과 충격을 던져준 컬러TV 덤핑 判定에 대해 政府當局과 關聯業界에서 끈질긴 努力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謝意를 표명하고 「금년에는 새로운 商品의 開發과 部品 素材의 國産化, 시설의 自動化로 國際競争力을 획기적으로 提高시켜 나아가야 하는 한편, 高度情報化社會의 조성과 中小部品 素材産業의 育成 그리고 尖端技術開發에 따른 리스크의 輕減 등 정책환경도 보다 더 한층 개선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금년 輸出目標인 60億弗을 기필코 초과 達成토록 다짐하고 모두 함께 決意하자」고 인사말에 대신했다.

이날 人事會에는 琴震鎬 상공부장관, 金聖鎭 체신부장관, 南憲祐 무협회장, 조정삼 과기처차관, 金炯培 공진청장, 洪性佐 특허청장, 朴弼秀 한국생산성본부 이사장 등을 비롯하여 姜晋求 本會 회장, 金應鎭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陳年鋼 한국통신학회 회장, 許愼九 金星社 사장, 鄭在恩 三星電子 사장, 金容元 大宇電子 사장 등 각계 人事 350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電子會館 確保 및 移轉 案内

本會는 電子業界의 오랜 宿願이던 電子會館을 마련, 오는 3月末頃 現 貿易會館에서 역삼동으로 移轉할 예정으로 있다. 本會館은 우리나라 全産業을 先導하는 電子産業이 앞으로 그 위치와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國家의 中樞産業으로서 高度 成長을 계속해 나갈 것임에 비추어, 급증하는 각종 振興事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空間, 컴퓨터 要員 양성을 위한 컴퓨터訓

練센터, 國內外 거래 알선을 위한 常設展示場, 會員 서비스를 위한 技術情報 제공의 資料室, 業界 總意의 수렴을 위한 會議室 확보 등의 問題 해소를 위해 필히 해결해야 하는 念願이자 宿願이었다.

그리하여 本會에서는 일찌기 77年度 定期總會에서 자체 회관 확보를 위한 基金 造成案을 의결하고, 84年度 定期總會에서 會館 확보 계획 및 컴퓨터 要員 양성 機關 설립에 따른 資金 조달 등 구체적인 執行 사항을 理事會에 委任하고 84年 7月 理事會에서 推進委를 구성, 84年 12月 까지 推進委에서 3차에 걸쳐 協議를 거친 후 12月的 理事會에서 電子會館 確保 推進 계획을 확정지었다.

電子會館은 소요 資金을 수년간에 걸친 적립금과 會員社의 特別會費로 조달하게 되는데, 상세한 案內文은 지난 연말에 각 會員社에 우송되

어 현재 特別會費의 협조를 받고 있는 중이다.

同會館은 강남구 역삼동 648번지에 新築中인 중앙빌딩의 10, 11, 12층을 매입, 사용키로 한 것인데, 3개층의 면적은 760坪(實 480坪)으로 事務室 및 상기의 시설이 入住케 된다.

